

18일 49재...다시보는 해인사 동광당 명진대화상

청정수행 · 자비실천의 삶 '귀감'



청년 수좌 때의 스님 모습.

동 광(東光)당 명진(明振) 대화상.
 지난 11월1일 오후2시, 세수 60세 법랍 46세로 출연하 원적에 드신 스님의 짧고 굵은 생애가 각박한 사바세계에 큰 귀감이 되면서 감동을 주고있다. 삼보정재와 시은(施恩)을 중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 수행자들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민중의 번뇌를 무겁게 지고 지마다 고통스러워 하는 세상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다.

"묘령에 불문에 득도하여 밤새 어산에 대가를 이루어 그 청아하고 낭랑한 음성으로 재불보살 찬양터나, 이제 만물이 생명을 뿌리로 감추어 조락하는 계절에 사대육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근원으로 돌아가 천지와 하나가 되셨소."(해인총림 방장 법진스님 '추모법어')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법신으로 영원히 불멸하니 역대의 조사가 성취한 안신입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법신분양에 귀향하셨으나 스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업적은 가람수호의 귀감이 되어 수행도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영결사')

해인총림 일군 살림꾼 절 창건 · '염불제일' 명성 천진보탑 · 불광보탑 세워 부처님사리 36과 봉안

58년 법보사찰인 해인사에 들어와 삼작부터 주지 소임까지 40여년 가야산에 지킨 명진스님. 길상암 스님방 문앞에 걸려있는 '지공스님이 해인상자를 정지하셨다'는 편액 내용대로 스님은 항상 해인사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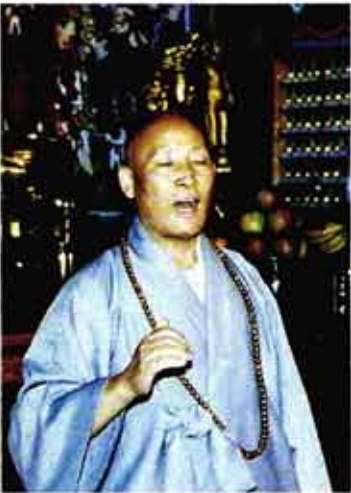
오늘의 해인총림의 모습은 바로 스님이 일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풍스러운 가람 분위기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다.

82년 해인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도량정비부터 착수했다. 스님들이 수행하고 불자들이 기도장전 하는 터전이기에 때문이다. 그래서 눈발은 남자를 키우고 여법한 진리를 집과 하는 '승중책임'의 사찰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많은 대종이 모일 수 있는 회관을 짓고, 종무소 건물의 남은 기둥을 갖고, 요사채에 고성능 보일러를 설치했다. 이렇게 퇴락해 가는 담장을 증축한 것이 모두 9채. 뿐만 아니다. 범종을 조성했고 종만 걸어둘 수 없어 종각도 지었다. 또 대소 행사때 띄우기 힘든 수 있는 방앗간을 최신 살리로 확충했다. 불과 2년만에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불사들이다. 명진스님의 불사에 대한 원력은 해인사 주지를 마치고도 계속됐다. 신내 길상암을 창건한 것을 비롯해 부산 사리암, 대구 청봉사, 의정부 삼은사 등 4곳의 사찰을 창건했다. 그리고 불사원력을 일반대중에 직접까지도 계속해 해인사 아랫마을에 2천여명에 양로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 정지작업을 해왔다.

스님은 불사 때마다 기도를 했다. 하루에 세번씩 해인사 장경각에서 시작해 큰법당, 삼성각, 강인



사경하는 스님.



'염불제일'로 유명한 스님이 청을 하고 있다.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스님.



다비후 명진스님이 남긴 사리 61과.

상주

吉祥庵主緣希朗 (길상암주연희랑)
 景福宮徒役嚴蕩 (경복궁도용희랑)
 千載老松同耶否 (천재노송동야부)
 花潭龍子擲蹄鄉 (화담용자적기향)

길상암주 회랑대에 인연 있었고
 경복궁 무리속에 최랑하도다
 천년 노송은 알과 화가 같으니 다름이
 낙화담에 배롱 잎으니 한번 치고 돌아오라

행장

- 1939년 4월21일 전북 정읍 생
- 54년 16세에 계룡산 신원사로 출가.
- 영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59년 신원사 금강계단에서 지운을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0년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을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57년부터 해인사 주석
- 62년 해인사당원 대교과 졸업
- 69년 거창포교당 주지
- 70~72년 해인사 교무, 총무 국장
- 74년~82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 82년~84년 해인사 주지
- 그밖에 총무원 교무부장, 해인사 임회의원, 평통자문회의 의원, 88올림픽 준비위원 등 역임
- 대구 청봉사 · 부산 사리암 · 의정부 삼은사 창건
- 96년 11월1일 오후2시 해인사 길상암서 영안

양쪽의 부처님께 절하고 천왕문 국사단까지 내려가 기도했다. 따지고보면, 모든 것을 기도의 원력으로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전에 스님은 이야기 하곤 했다.

"기도란 부처님과 하나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심을 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거든요. 부처님의 원력은 위해서 신심으로 행하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다."

그 기도는 오직 은사 영암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으로 부터의 대물림일 것임에 틀림없다. 길상암은 지난 72년 영암스님이 직접 터를 잡아주신곳. 영암스님은 자운스님과 함께 손수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길상암으로 이운해 길상암 위 묘길 산봉에 천진보탑을 짓고 그 속에 모셨다. 영암스님은 이때 철아가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 스님도 은사 스님 곁에서 길상암을 적멸보궁으로 가꾸겠다는 원을 세웠다. 마침내 96년 10월 미얀마 우스비타 종장



주력심매에 든 명진스님.

이 직접 길상암으로 모셔온 석가여래 진신사리 3과를 불광사리암을 건립해 봉안했다. 그래서 길상암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천진보탑과 불광보탑 등 두 곳의 사리탑이 자리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함께 기도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명 진스님이 은사로 부터 받은 대물림의 또 하나 있다. '염불'이다. 영암스님의 뒤를 이어 '염불제일' 스님이라 해인사는 물론이고 영남일원 법회의 큰 의식은 모두 스님이 집전할 정도. 스님은 예경의식을 정하는 곳은 모두 응했다. 거리의 말고 가까움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불자 누구에게나 달려가 그들의 마음밭을 채워주었던 것이다.

스님에게는 출세간에 50여명의 상좌가 있고 세간에 3백여명의 자식들이 있다. 82년부터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어린이들을 돌본 것이 15년여. 그래서 길상암에는 연평균 15명 여의 불우

아이들이 늘 함께 살아왔다. 스님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서로가 의지하며 자비를 생활화하여 작은 외로움조차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지녀왔다. 따뜻한 동체대의 무애평등의 삶을 실천한 것이다.

스님이 가장 엄격할 때는 기도할 때와 상좌들을 가르칠 때.

"시주의 은혜를 중히 생각하라. 남에게 절대로 쾌를 끼치지 말아라.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라." 이것은 스님이 말로써 표현한 바 없다. 그저 묵묵히 생활속에서 보여줄 뿐이다.

스님이 외출할 때면 공양주가 바쁘다. 반드시 도시락을 챙겨 떠나기 때문이다. 외식에 드는 정재가 아깝고 낭비하는 것같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고 보면, 생활 그대로가 기도정진이고 수행이다. 스님의 생애는 남긴 61과의 사리와 함께 무위진인(無爲眞人)으로 불자들의 심전을 밝히고 있다.



스님이 40여년을 주석해온 길상암 전경.



72년 석가여래 진신사리 2과를 스리랑카에서 모셔와 천진보탑에 봉안했다. 함께 기도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천진보탑이 자리한 적멸보궁 전경.



미얀마 우스비타 종장이 직접 모셔온 석가여래진신사리 34과가 모셔져 있는 불광보탑. 해인사 길상암에 있다.

동광당 명진대화상 49재 봉행안내

지난 11월1일 열반에 드신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전 주지이신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목중 목도 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무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동광당 명진 대화상의 영결식은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각계 인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할 가운데 해인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데 대해 거듭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9재 안내

- ▶ 일시 : 불기 2542년(1998년) 12월18일(금요일) 오전10시
 - ▶ 장소 : 해인사 대적광전
 - ▶ 문의 : 길상암(0599-932-7268)
- ※ 이날 참석하시는 신도님께 동광당 명진대화상의 생전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시합니다.

- 문중대표 : 천운 법인
- 은법상좌 : 덕운 보타 법륜 무학 일륜 길상 선해 석우 건불 혜원 해관 길남 해일 덕배 해중 일라 선일 광해 석철 성목 보운 덕진 석전 대일 원일 현지 래광 보일 지선 지밀 보문 지경 지광 해웅 양지 정진 동운 길장 법장 진우 상현
- 손 상 좌 : 선각 선지 선관 기철 지운
- 재가제자 : 해인 보혜 해진 길조